

2018년 1월 전문건설업(SC) 경기실사지수(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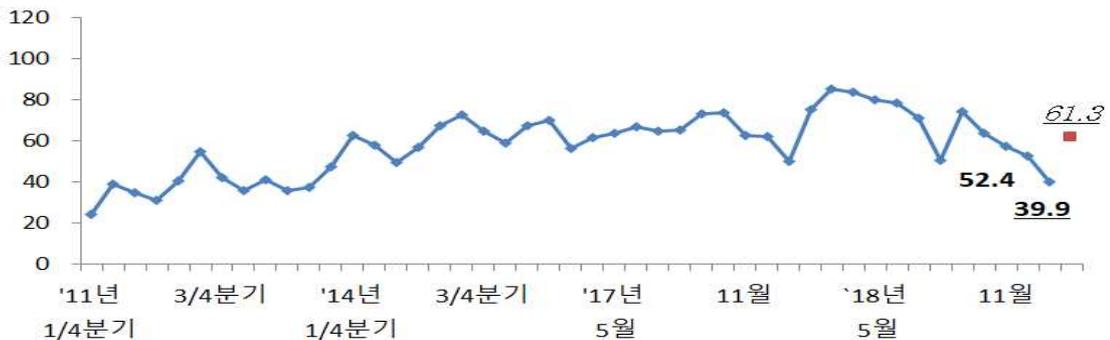
I. 2019년 1월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2019년 2월 전망

○ 1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하락, 2월은 큰 개선 전망

- 1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up>1)</sup>는 비록 지난 12월(52.4)보다 크게 하락한 39.9로 조사되었지만 차월(61.3)에는 큰 폭의 반등이 전망됨.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SOC 투자확대계획<sup>2)</sup>과 상반기의 분양예정물량<sup>3)</sup> 등에 기인한 장기건설업황의 개선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33.3(41.7→33.3)로, 지방은 41.6(55.5→41.6)으로 모두 전월보다 하락함. 하지만 차월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금월보다 큰 폭의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1> 2019년 1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19년 2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2019년 1월 평가	39.9	33.3	41.6
2019년 2월 전망	61.3	61.1	61.3



[그림-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전망 추이

- 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월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이전의 추이는 종전까지 분기조사로 집계된 경기실사지수값을 이용함.
- 2) 금년의 생활SOC 예산은 전년보다 50%가량 늘어난 8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오는 3월에는 2020~2022년까지를 다루는 3개년 계획도 확정될 것으로 알려짐. 뿐만 아니라 얼마전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도 확정되면서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함. 이는 그간 SOC투자 축소 등을 근거로 제기되던 건설업의 위기론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임.
- 3) 업계는 금년 상반기에 10대 건설사가 계획한 아파트 공급물량이 7만 가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지난 20년간의 최대 규모임. 이 수치에는 전년도의 이월물량도 포함됨.

##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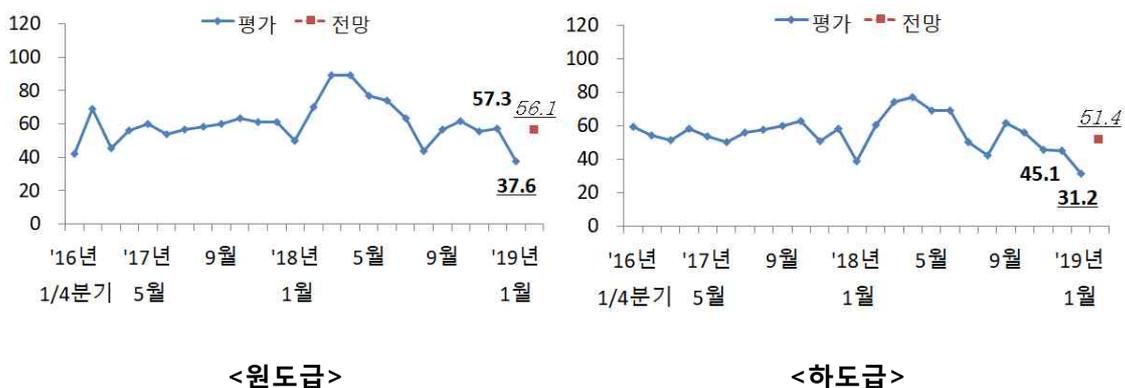
###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하락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이 37.6(57.3→37.6), 하도급은 31.2(45.1→31.2)로 전월보다 하락한 결과를 보였음. 하지만 다음 2월부터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sup>4)</sup>.
- 지역별로는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41.7→30.6)과 지방(61.7→39.4)에서 모두 하락세를 나타냄. 마찬가지로 하도급 공사수주지수 수도권(38.9→25.0)과 지방(46.9→32.8)에서 모두 전월보다 하락함.

<표-2> 2019년 1월 전문건설업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 역	
		수도권	지방
원도급	'19년 1월 평가	30.6	39.4
	'19년 2월 전망	52.8	56.9
하도급	'19년 1월 평가	25.0	32.8
	'19년 2월 전망	41.7	54.0



[그림-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추이

4) 참고로 금년에 예정된 서울의 입주예정 아파트는 작년의 2배 수준인 약 5만 2천여 가구로 알려짐에 따라 마감공종 등에 소요되는 전문건설공사는 수행규모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금년의 신규분양이 건설사들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건설공사의 규모 등도 전년도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임. 더구나 공공부문의 공사발주가 향후 연단위로 지속된다면 장기적인 업황유지도 가능할 것임. 하지만 지역별 편차는 해소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할 것임.

##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전월과 유사, 자금조달지수는 소폭 개선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낮은 58.4(65.9→58.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동월(75.0)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임.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7.2(66.5→57.2)로 소폭 하락했으며 역시 전년 동월(80.6)보다 크게 낮은 상황임.
- 공사대금수금지수를 수도권(69.4→63.9)은 소폭의 하락을, 지방(64.8→56.9)은 수도권보다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음.
- 자금조달지수도 수도권(72.2→55.6)과 지방(64.8→57.7)에서 모두 하락했으며 전자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욱 컸음.

<표-3> 2019년 1월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 역	
			수도권	지방
공사대금수금	'19년 1월 평가	<b>58.4</b>	63.9	56.9
	'19년 2월 전망	<b>66.5</b>	75.0	64.2
자금조달	'19년 1월 평가	<b>57.2</b>	55.6	57.7
	'19년 2월 전망	<b>65.9</b>	63.9	66.4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그림-3]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추이

### 3. 인건비지수

○ 인건비지수는 전월보다 하락

- 인건비 경기실사지수는 60.7(73.8→60.7)로 전월보다 떨어졌지만 전년 동월(58.3)과는 유사한 수준임. 이로 미루어보면 전월에 발생했던 지수의 개선은 겨울철을 앞둔 12월이라는 시기적 요인으로 인한 한시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77.8→55.6)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해 차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지방(72.7→62.0)은 전월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차월에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표-4> 2019년 1월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인건비	2019년 1월 평가	55.6	62.0
	2019년 2월 전망	52.8	59.9



[그림-4]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추이

5) 동계는 건설공사의 비수기로서 야외공사 등에 필요한 인력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임. 하지만 현재까지 업계에 알려진 금년의 발주예정물량 등을 감안하면 건설현장의 인력수요와 인건비 문제는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고로 2019년에 건설업에 할당된 외국인력 쿼터는 전년보다 100명 감소한 2,300명에 불과함.

#### 4. 자재수급지수<sup>6)</sup>

○ 자재수급지수는 전월과 유사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103.5(100.6→103.5)로 전월과 사실상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참고로 현재 자재분야의 주요 이슈로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바다모래 채취중단의 장기화에 따른 골재수급문제와 철근가격의 결정방식 정도를 들 수 있음<sup>7)</sup>.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00.0→108.3)은 전월보다 개선, 지방(100.8→102.2)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5> 2019년 1월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자재수급	2019년 1월 평가	103.5	102.2
	2019년 2월 전망	104.0	103.6



[그림-5]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추이

- 6)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기 때문임.
- 7) 2월은 설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의 감소와 제강사들의 설비보수 등으로 인해 연중 철근생산원가가 가장 높은 시기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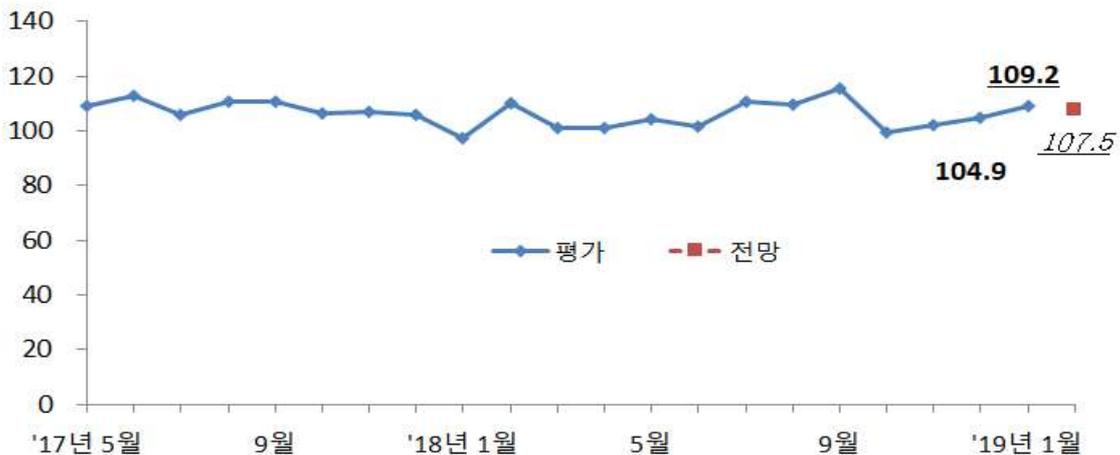
## 5. 건설장비수급지수<sup>8)</sup>

### ○ 장비수급지수도 전월과 유사

- 장비수급지수는 전월과 사실상 유사한 109.2(104.9→109.2)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동월(97.2)보다는 높은 수준임.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동계라는 시기적 요인을 감안하면 달리 유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sup>9)</sup>.
- 지역별로는 수도권(102.8→111.1)은 전월보다 개선, 지방(105.5→108.8)은 전월과 사실상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6> 2019년 1월 전문건설업 건설장비수급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 역	
		수도권	지방
장비수급	2019년 1월 평가	111.1	108.8
	2019년 2월 전망	108.3	107.3



[그림-5] 전문건설업 건설장비수급지수 추이

8) 건설장비수급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조사에 신규로 추가된 항목임.  
 9) 전문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같은 건설장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 노조 등의 문제는 여기서 살펴보는 장비수급과는 별개의 사안임.

※ 참고: 2019년 1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분		전체	지역		
			수도권	지방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b>39.9</b>	33.3	41.6
		차월 전망	<b>61.3</b>	61.1	61.3
공사물량	원도급	금월 평가	<b>37.6</b>	30.6	39.4
		차월 전망	<b>56.1</b>	52.8	56.9
	하도급	금월 평가	<b>31.2</b>	25.0	32.8
		차월 전망	<b>51.4</b>	41.7	54.0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급	금월 평가	<b>58.4</b>	63.9	56.9
		차월 전망	<b>66.5</b>	75.0	64.2
	자금조달	금월 평가	<b>57.2</b>	55.6	57.7
		차월 전망	<b>65.9</b>	63.9	66.4
인건비		금월 평가	<b>60.7</b>	55.6	62.0
		차월 전망	<b>58.4</b>	52.8	59.9
건설자재 수급		금월 평가	<b>103.5</b>	108.3	102.2
		차월 전망	<b>104.0</b>	105.6	103.6
건설장비 수급		금월 평가	<b>109.2</b>	111.1	108.8
		차월 전망	<b>107.5</b>	108.3	107.3

문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